

소재·부품 국산화 타고... 웨이퍼캐리어 점유율 50%로

코스닥스타를 찾아서

3S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양산 시장점유율 15%→50%로 확대 목표 삼성전자와 신형 웨이퍼캐리어 개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바람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91년 설립돼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3S다. 3S는 국내 유일의 웨이퍼캐리어 생산 기업으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웨이퍼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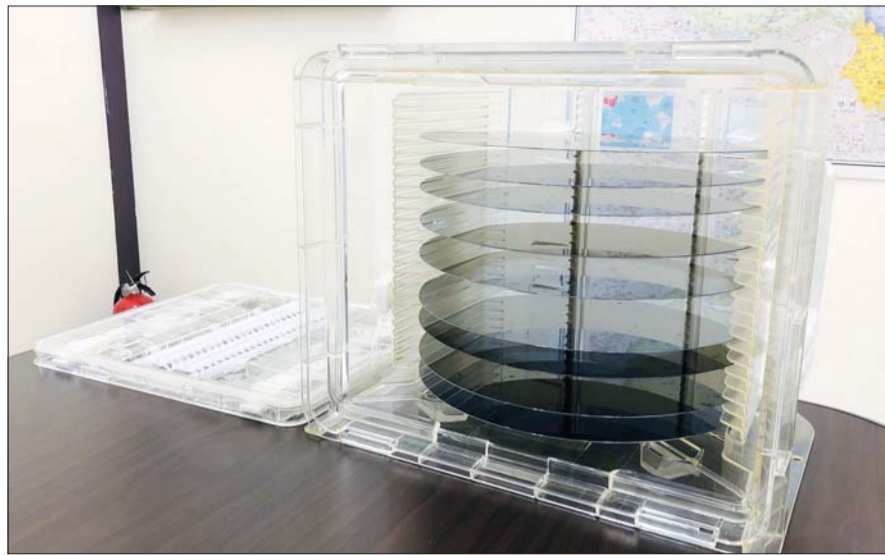
김세완 3S 대표는 “현재 국내 웨이퍼캐리어 공급의 약 15%를 3S가 차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 국산화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FOSB 웨이퍼캐리어 양산 기업

3S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어양산기업이다. 웨이퍼캐리어는 웨이퍼 생산업체에서 완성한 웨이퍼를 반도체 생산업체로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클린진공박스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반도체 특성상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특수용도 케이스다. 웨이퍼캐리어는 전공정용인 FOSB(Front Opening Shipping Box)와 후공정용인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로 나뉘는데, 3S의 주력 제품은 300mm FOSB다.

3S는 국내 웨이퍼캐리어의 약 15%를 점유 중이다. 3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1차 관계사인 웨이퍼 제조 기업에 웨이퍼캐리어를 공급한다. 싱가포르, 대만, 독일 웨이퍼 업체로 수출해 웨이퍼를 담아 국내 반도체 완성업체로 들어간다. 나머지 85% 이상은 일본 제품이 사용된다. 웨이퍼캐리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엔터그리스(Entergris)와 일본의 시네츠(Shinetsu), 미라이얼(Miraial), 한국의 3S, 4곳만이 양산 공급하고 있다. 각각 점유율은 일본이 75%, 미국이 10%, 그리고 한국이 15%다. 미국의 엔터그리스제품



3S의 FOSB 웨이퍼캐리어.

/배한님기자

은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캐리어는 일본 제품과 한국 3S 제품으로 나뉜다.

3S는 지난 2007년 일본 골드공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FOSB 웨이퍼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2009년 10월부터 양산·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웨이퍼캐리어는 3S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한다.

김 대표는 “웨이퍼캐리어는 모두 안성 1, 2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현재 설비상으로는 월 캐파(CAPA)가 4만5000개며 현재는 1만2000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물량이 늘어나 금형 추가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월 3만개 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S는 이 밖에도 대기업을 제조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성능과 신뢰도 등을 테스트하는 환경시험장치 ‘칼로리미터’도 생산하고 있다. 칼로리미터 사업

은 3S 전체 매출액의 55~60%를 차지한다.

3S는 2018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약 357억원, 영업이익 약 16억원, 당기순이익 약 14억원이었다. 3월 결산기업인 3S는 지난 14일 1분기 보고서 제출했는데, 1분기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달성했다. 3S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약 75억원, 영업이익 약 8억4000만원, 당기순이익 약 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웨이퍼캐리어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 영업이익은 7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공장 설립 등 비용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고 흑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웨이퍼캐리어 등 소재·부품 국산화에 힘써

3S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웨이퍼캐리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부터 3S 공장을 방문해 쪽 돌아본 뒤 3S가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말했다”며 “삼성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웨이퍼캐리어를 개발해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삼성에서 속도를 더 내자고 해서 일본 제품과 3S 제품을 5:5로 쓸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고 덧붙였다. 신형 웨이퍼캐리어는 내년 초 개발 완료해 삼성전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가 매년 150만개의 웨이퍼캐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50%인 70만개만 댈 수 있어도 150~16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와도 웨이퍼캐리어업그레йд을 함께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1차 관계사인 웨이퍼 제조기업 SK실트론과 웨이퍼캐리어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3S는 이 밖에도 웨이퍼 잉곳을 키우는 반도체용 그릇인 석영 도가니용 합성석영도 개발했다. 특히도 출원 중이다. 현재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를 찾고 있다. 김 대표는 “합성석영분야는 조 단위의 큰 시장이나 국내에 이걸 만드는 곳이 없어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 중”이라며 “양산을 할 수 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3S 안성 2공장.

/3S

해외 임직원 2.1만명 ‘홀쩍’... 글로벌 물류사 ‘순항중’

CJ대한통운

전체 임직원의 76.8% 차지

공격적 M&A·시장 공략으로 매출 ↑

CJ대한통운의 발걸음이 하늘, 땅, 바다를 종횡 무진 누비고 있다.

전 세계 37개국, 148개 도시에서 ‘CJ대한통운’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임직원이 2만10000명을 훌쩍 넘어 글로벌 물류 강자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통운이 2013년 당시 CJ그룹 품에 안기고, 사명도 CJ대한통운으로 바뀐 후 해외 임직원수만 7.2배 늘어나며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 세운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수는 2만114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를 포함한 CJ대한통운 임직원수는 올해 상반기 현재 총 2만7527명이다. 해외에 있는 숫자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CJ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만해도 해외 임직원수는 2920명에 그쳤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해외 근무 인원은 33.8%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러다 10명 중 8명으로 크게 늘었다.



CJ대한통운의 미국 뉴캐슬리시인 DSC로지스틱스 직원들이 물류센터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해외 임직원 인원은 CJ로킨, CJ스피텍스 등이 영업하고 있는 중국이 7028명(33.2%)으로 가장 많다.

또 K-택배 등이 진출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5249명(24.8%)이다. 이외에 DSC가 위치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남미 지역이 4644명(22.0%), CJ다슬을 중심으로 한 인도 3348명(15.8%) 등이다. 특히 국내 물류기업으로는 드물게 알제리, 쿠웨이트,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등에도 현지 임직원 10여명이 근무하며 글로벌 물류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이처럼 글로벌 물류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CJ그룹에

편입된 후 진행된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때문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은 가장 중요한 진출처로 꼽고 있는 중국에서 2013년 CJ스마트카고, 2015년 CJ로킨을 각각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2016년에는 세계 3대 가전기업인 중국 TCL그룹과 물류합작법인 CJ스피텍스를 설립, 전기전자 물류시장에도 진입했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CJ센추리로지스틱스 인수(2016년), 필리핀 CJ트랜스네셔널 합작법인 설립(2016년), 베트남 CJ제마덱 물류·해운 부문 인수(2017년), 태국 택배시장 진출(2017년) 등도 진행했다.

특히 2017년 당시 인도 최대 수송기업

<2013년 이후 CJ대한통운 M&A 현황>

시기	이름	국가
2013.4	CJ스마트카고	중국
2015.12	CJ로킨	중국
2016.8	CJ스피텍스*	중국
2016.9	CJ센추리로지스틱스	말레이시아
2016.11	대형 물류센터 인수	인도네시아
2016.12	CJ트랜스네셔널 필리핀*	필리핀
2017.4	CJ다슬	인도
2017.4	CJ ICM	UAE
2017.10	CJ제마덱	베트남
2018.6	DSC로지스틱스	미국

*는 합작.

인 CJ다슬로지스틱스, 중동·중앙아시아 중량물 1위 기업 CJ ICM 인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인수한 미국 DSC는 세계 물류시장의 비주류였던 대한민국 물류가 주류 물류시장 공략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같은 공격적인 글로벌 M&A 결과 2013년 당시 연간 1조706억원이었던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매출은 올 상반기에만 2조45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베트남 CJ제마덱이 지난해 2월, 미국 DSC의 실적이 지난해 8월부터 연결 실적에 반영된 만큼 올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홈쇼핑

‘추석사전예약관’ 기획전

홈쇼핑은 2014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빠른 추석을 맞아 모바일 기획전 ‘추석사전예약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홈쇼핑 모바일 앱 ‘추석사전예약관’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최대 10% 추가할인을 받고, 현대카드 결제 시 추가 청구할인 7%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홈쇼핑의 대표 프로모션인 ‘10&10(10%할인 및 10%직접)’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고일 지정도 할 수 있다.

상품 옵션 중 ‘출고일’을 선택하면 지정 출고일을 기준으로 2~3일이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출고일은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날짜 중 원하는 날을 지정하면 된다. 출고일 지정이 없을 경우엔 당일 배송으로 진행된다. 또 ‘추석사전예약관’에서 동일 상품을 100개 이상 대량구매 시 해당 상품 판매담당MD와 직접 연결을 통해 가격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